***2021년 / 8월 2주차***

## ■ 연구원 소식

###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콘서트 관람 안내(2021년 8월 18일 14시)

우리 연구원 왕기석 이사가 원장으로 재직중인 국립민속국악원에서 국악콘서트<다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원칙으로 정규 공연시설인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650여석 수용 규모에서 150인 내외 입장)에서 열리는 이번 국악콘서트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회원은 8월 13일(금)까지 연구원 사무국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다라 인문 아카데미 안내

**우리 연구원과 협약기관인 전주대학교 고전학연구소 에서 진행하는 온다라 인문아카데미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실시간 강좌로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가가는 인문학, 함께하는 인문학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HK+)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

온라인 실시간 강의

전북 도민 누구나!

## 온다라 인문 아카데미

### PART 01 수강방법

① 유튜브에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 검색 후 접속 가능

② QR 코드를 통해 바로 접속 가능

### PART 02 참여혜택

① 수강료 전액 무료

② 매 회차 추첨을 통해 상품 증정

③ 7강 이상 수강 시 선물 증정

※ 이번 강좌는 실시간 강좌로 진행되므로 강좌 관련 수강생 모집은 따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 SNS 이벤트

필수 해시태그: #전주대학교 #온다라지역인문학센터 #온다라인문아카데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에 해당 강좌 포스터를 게시한 후, 인증샷을 센터 메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상품권을 드립니다.

※ 강사 및 강의 주제, 강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회차 | 일자 | 시간 | 강좌명 / 강사 |
|---|---|---|---|
| 1 | 8. 4.(수) | 16시 ~ 18시 | 순국 그리고 비극적 죽음 / 이경배(전주대 HK연구교수) |
| 2 | 8. 5.(목) | | '의리(義理)'는 어떻게 '으리!'가 되어갔을까? -개항기 편 / 문경득(전주대 HK연구교수) |
| 3 | 8. 11.(수) | | 서구 근대 심리학의 수용과 전파 / 이대승(전주대 HK연구교수) |
| 4 | 8. 12.(목) | | 유교문화 전통과 한말의 자결 순국 / 서정화(전주대 HK교수) |
| 5 | 8. 17.(화) | | 일본의 조선 침략과 이데올로기적 시나리오 / 김동희(전주대 HK연구교수) |
| 6 | 8. 18.(수) | | 열 사상과 나라 잃은 슬픔을 극복하기 / 전종윤(전주대 HK교수) |
| 7 | 8. 25.(수) | | 맹자(孟子)의 인민과 국가 / 오항녕(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 8 | 9. 1.(수) | 17시~19시 | 재일 제주인의 공동체와 문화 / 김창민(전주대 교양학부 교수) |
| 9 | - | | 지역 인문자산을 활용한 랜선체험 Ⅰ, Ⅱ |

### 랜선체험이란?

신청을 통해 선착순 30명 선발 후, 체험키트를 댁에 보내드리고 사진을 통해 진행되는 체험방식

[체험1]
문학체험 '작가 취재수첩, 길광편우(吉光片羽)'

[체험2]
'매듭인형, 알콩이와 콩심이'

※ 체험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1045347)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HK+)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
55069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303 진리관 212A호 | TEL 063) 220-3201~3, 3207
H.P www.jj.ac.kr/hk/ | E-MAIL jjondara@naver.com

주관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 최명희문학관 후원 교육부 NRF 한국연구재단 전주대학교

## ■ 역사 속의 오늘

### ながはる うに 살다 우장춘으로 돌아가다 (1959년 8월 10일)

그는 망명객인 조선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나가하루 우란 이름으로 1898년 도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을미사변 당시 훈련대 제2대대장이었는데 명성황후 시해사건에 가담했다가 일본으로 망명해 사카이 나카와 혼인했다. 그러나 아들 나가하루가 태어난 지 5년 만에 조선인 자객 고영근에게 암살당한다.

아버지가 죽은 후 그는 고아원에서 지낼 정도로 어려운 일상을 보내야 했다. 가정 형편이 좀 나아지자 히로시마에서 중학교를 마친 후 박영효의 주선으로 조선총독부에서 학비를 지원받아 도쿄제국대학 농학부에 진학하게 된다.

그는 1916년 신입생 때, 조선인 도지사가 방일해 조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친일연설을 벌이자 와세다대학에 재학중이던 조선인 유학생 김철수(조선공산당 3차 책임비서, 2005년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가 강사에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된다. 이후 김철수와 친분을 나누며 "아버지 우범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독립과 조국을 위해 배운대로 봉사해야 되고 조선인의 성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말을 평생 잊지 않고 지냈다고 전해진다.

1919년에 도쿄제국대학 농학과를 졸업한 후 농림성 산하 연구소에 취직하여 나팔꽃의 유전에 대해 연구했다. 1924년에는 가정교사를 했던 인연으로 일본인 와타나베 코하루와 결혼했는데 코하루 집안에서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자 아내 코하루는 친정과 의절하기에 이르렀다. 그로부터 3년 후에는 망명 조선인을 지원하는 일본인의 양자가 되어 스나가 나가하루(須永長春)라는 이름을 얻었고 자녀들도 일본인으로 키우기로 하여 스나가 성을 사용했으나, 본인은 계속 우씨 성을 사용했다.

그는 1935년 "배추속(Brassica) 식물에 관한 게놈 분석"이라는 논문을 통해 '종의 합성' 이론을 제시했다. 배추와 양배추의 교잡을 통해 이미 존재하는 유채를 실험적으로 만들고, 그 과정을 유전학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종간 잡종과 종의 합성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밝혔다. 이 이론으로 인해 '종의 분화는 자연선택의 결과이다.' 였던 다윈의 진화론에 맞서는 이론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1936년 도쿄제국대학에서 농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나 연구업적과 관련 없이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끊임없는 차별을 당한다. 한편 광복 후 한국의 식량사정은 형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우량종자의 개발과 보급이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성금모금까지 진행하며 그를 귀국시키기 위해 애썼는데 반면 일본은 그의 연구 성과가 한국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

그는 결국 1950년 3월 "지금까지 어머니의 나라 일본을 위해 노력했다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나라 한국에 뼈를 묻을 것을 약속한다"는 귀국 성명을 발표하며 한국에 정착한다. 곧바로 부산에 자리한 한국종업과학연구소 초대 소장으로 취임한 그는 귀국을 위해 한국에서 모아진 성금을 일본에 남은 가족에게 전해주지 않고 실험도구와 종자 구입비로 모두 사용했다.

1951년 우장춘 박사는 채소 종자를 생산하기 알맞은 땅을 찾아 제주도를 방문했다. 제주도는 기후가 온화하고 장마가 빨라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시가가 겹치니 좋은 종자를 생산하기 어려웠다. 대신 감귤 재배에는 적당했다. 이후 우장춘 박사의 권유로 제주도의 농업관계자와 농민에게 감귤 재배를 적극 권장했고, 제주도는 우리나라 최고의 감귤 생산지가 됐다.

1950년대까지 영양분이 떨어지고 맛도 부족했던 김치의 원료 무와 배추를 맛 좋고 병에 강한 배추와 무 품종으로 개량하는데 성공했으며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됐던 강원도 감자의 품종을 개량해 세계적으로 맛 좋고 튼튼한 강원도 감자도 생산했다. 하지만 1959년 5월 원예시험장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마친 그는 병원으로 직행해야 했다. 평소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아 '십이지장 궤양'이란 진단을 받은 것이다.

3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병세가 악화되던 순간에도 그는 "벼를 직접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제자들이 동래 한국농업과학연구소에서 가져온 벼가 손에 쥐어졌다. 그는 벼를 손에 쥔 채 "이 벼! 끝을 보지 못하고 내가 죽어야 하다니..."를 남기고 숨을 놓았다.

그의 연구 성과와 달리 반쪽발이라며 무시했던 한국은 그가 숨을 놓기 3일 전에야 훈장을 추서했고 그가 죽은 후 흉상을 세우고 기념관을 만들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에 가면 "우장춘로"가 있다.